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희대학교”



▲ 경희대 전경

1949년 5월 12일, 교사(校舍)도 교지(校地)도 없는 이름뿐인 대학에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敎示)를 초석으로 설립, 지난 반세기 동안 우수 명문사학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경희대학교는 ‘학원의 민주화·사상의 민주화·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 아래, 현재 서울·수원·광릉 등 3개 캠퍼스에 총 22개 대학, 45개 학부(과), 99개 전공과 16개 대학원, 38개 부설 연구소가 개설되어 ‘세계 속의 경희’로 나아가고 있다.

■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경쟁력 갖춰

경희대학교는 1952년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71년 동서양 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제 3의학의 산실인 경희의료원을 개원, 2001년 30주년을 맞이했고, 수원 및 광릉에 캠퍼스를 설립해 동양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서울·수원·광릉 등 3개 캠퍼스에 학부 재학생 23,231명, 대학원생

4,024명, 전임강사 이상 교수 849명의 초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

또,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괄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인류문화의 위대한 금자탑'을 세워 전 인류공동의 재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사명인 교육과 연구는 물론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 아래 끊임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95년도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96년도 교육개혁평가 최우수대학, '97년도 대학종합평가 및 교육개혁평가 전국 1위, '98, '99년도 대입전형 다양화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분야별로도 2000년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평가와 법학분야, 2001년에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2002년에는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분야 등이 이어가고 있다.

■ 더 넓게 뻗어가는 국제화

21세기에는 지구촌 시대를 이끄는 대학 위상 정립을 위해 대학 본부내 국제화의 주도기구인 국제 교류센터를 개설, 단일 대학으로는 가장 많은 전세계 51개국 207개 자매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각종 연구활동과 학점인증제도, 교환학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자매대학 어학연수단을 운영, 학생들이 저렴한 경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기 중에도 전공연수, 체육연수 등 각종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의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대학총장회의(1968년)'를 개최해 세계화의 선봉 대학임을 입증하기도 했으며, 동서양 의학의 접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의학 국제 박람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해마다 개최, '경희 재창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 한의과 실습 장면



▲ 첨단 강의실

■ 독특한 입시제도와 다양한 전공 제도

경희대의 교육목표는 새 천년을 맞아 국제화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국제적인 리더를 길러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시 및 특차모집에서 토폴 및 토익 성적으로 모집하는 국제화추진 전형, 특수재능 보유자, 정보화 특기자 등 다양한 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0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인기그룹 핑클의 멤버인 성유리, 옥주현 양이 연극영화과에, 2001년 수시모집에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2관왕인 양궁선수 윤미진 양이, 2002년 수시모집에는 가수 박효신 군이 합격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연계전공제도이다. 경희대는 1997년부터 학과와 학과간 연계를 하거나 전공을 더욱 심화시키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학과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기초 학문을 연구하면서 사회에 나가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예를 들어, 국문과 학생에게 사회학과 언론정보학을 함께 공부하

도록 하여 다큐멘터리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부여한다. 경제과의 경우 선물환과 컨설팅을 함께 가르쳐서 기업에서 재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입학할 때 학과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이수한 과목으로 졸업학과를 정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즉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초일류대학을 위한 정보화 앞장

경희대학교는 일찍이 1991년 대학 최초로 3개 캠퍼스를 연결하는 LAN 시설을 도입하고 특히 1995년 1학기 사회학과와 필수과목인 '정보사회론' 으로부터 시작한 원격재택수업은 21세기 대학 정보사회의 밑거름이 됐으며, 현재 17개 과목으로 확대 실시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서지 105만여 건/원문 5만 3천여 건),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보화는 또 국내외 대학과의 문서공급 서비스 협정과 인터넷을 통한 국제 원격수업 등을



▲ 도서관

통해 대학교육의 선진화에 일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희 발전은 적극적인 자세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그 가치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노

력',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진취적인 기상', 개성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협동'이라는 경희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는 「경희 Vision 2000」을 통한 2020년도 세계 50대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과, 그 인재를 크고 알차게 키워내는 예지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동량을 배출해 온 경희대학교, 그 역사와 성과만큼이나 앞으로도 '지도자 중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 중의 대학'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경희**



▲ 경희대 국토순례단